

2013년 제6호
2013년 8월 30일 (금)
한농연중앙연합회
회원지원센터

한농연 조직 활성화 소식지

전화 : (070)7165-0017
전송 : (02)3401-6549
<http://kaff.or.kr>
kaff0001@gmail.com

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0주기 추모식

- 9월 11일(수) 오전 11시,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엄수 예정
 - 일시 : 2013년 9월 11일(수) 11:00
 - 장소 : 한국농업연수원(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813 (063-352-3051, 3052))
 - 식순
 - 오전 11시 :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걷기 대회
 - 오후 1시 : 기념 토론회(다시 만나는 이경해)
 - 오후 2시 : 이경해 열사 10주기 추모식
 - 오후 3시 : 묘역 참배(한국농업연수원 내 열사 내외 묘역)
 - 문의 : 한농연중앙연합회(02-3401-6543)

지역 농업 관련 소식

- 경기도 이천시, 여주군, 특별재난지역 선포
 - 정부는 7월 22~2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와 여주군 2개 지역을 8월 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. 이는 7월 27일 경기 가평군, 강원 춘천·홍천·평창·인제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올 들어 두 번째임
 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에 따라 총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~80%를 국고에서 지원.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
-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,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
 - 경북도는 올 상반기 19개에 이어 최근 추경 사업비 9억 300만원을 확보해 신규 12개, 재선정 3개 등 모두 15개를 하반기 마을기업으로 지정. 도는 이를 통해 120여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
 - 경북도내에는 현재 68개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인데, 도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 초기 설립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기존 마을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
- 전라북도의 농수산물 내 쌀 생산 핵심조직 통합·축소 움직임에 한농연 등 농업계 반발 거세
 - 전북도가 새만금개발청 출범에 따른 관련 직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쌀 생산담당 조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한농연 등 농업계가 강력 반발
 - 특히 농수산물 내 식량지원담당과 농지관리담당 등 2개 계를 통합해 농지보호담당 1개계로 축소하는 (안)이 예고돼, 한농연전북도연합회(전창재 회장) 등 농업계는 쌀 생산 관련 핵심조직의 통합·축소에 크게 우려하고 있음
 - 반면 전북도가 △유통가공과에 농식품 6차산업, 농산물유통,

귀농귀촌, 원예특작, 종자산업, 가공산업 등 6개계로 구성하고 △농수산물식품국에 있던 식품분야 조직을 전략산업국으로 배치했다가 이번에는 지역식품클러스터계와 6차산업계를 통합해 농식품 6차산업계로 재변경하면서 농수산물 유통가공과 조직에 포함된 것은 조변석개식 조직개편이라는 불만을 제기

- 한-중간 보따리상을 통한 중국산 마늘 수입 급증...시세 형성에 악영향(농민신문 8월 23일 보도)
 -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(위해)와 평택을 잇는 페리편을 통해 50~70대의 장·노년층이 주축이 된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마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농민신문이 보도
 - 이들 보따리상들은 깐마늘, 건고추, 참깨, 검은깨, 땅콩, 잡곡 등의 중국산 농산물을 들여오고 있음. 깐마늘의 경우 가로 30cm, 세로 20cm, 높이 15cm의 종이상자에 5kg 분량, 깨 등 타 농산물은 품목별로 5kg씩 포대에 담아서 1인당 총 50kg(관세당국 최대 허용치)의 농산물이 반입되고 있는 실정
 - 이들 보따리상 중 절반 이상이 서툰 한국어를 구사하는 중국인이며, 한국인 수집상들로부터 1회당 10만원씩 수고비를 받고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
 - 이를 통해 페리편으로 1주일 동안 들어오는 중국산 마늘은 약 75톤(5kg×보따리상 1명×3회×10편)으로 농민신문은 추산
 - 이들 중국산 마늘은 상당량이 재래시장으로 유통되는데, 보따리 형태로 수입돼 원산지 표시가 없으므로 대부분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면서, 국산 마늘의 판로 축소 및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음
 - 따라서 농업인은 물론 공영도매시장 상인들까지, 보따리상을 통한 통관 물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음

농업인교류센터 사건심의위원회 안내

- 농업인교류센터는 농업인들의 법률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“사건심의위원회”를 운영중입니다!
 - 한농연 회원 및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공익적 사건의 해결을 도와드리고자 자문 변호사 및 전문 전문가들이 도움을 드리고 소송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

※ 찾아가는 서비스, 농업인법률학교, 사건심의위원회 관련 문의
→ 농업인교류센터 오준호 대리 (070-7165-0013), 한농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나 “농터”로도 신청을 받습니다.

- 농업인교류센터 “농업인법률학교” 일정 안내
 - 전남도연합회 : 9월 4일(수), 전남도연합회 회의실
- 농업인교류센터 “찾아가는 서비스” 일정 안내
 - 광주광역시 : 9월 5일(목),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